

# 임실군, 민생지원금 지급 초고속

### 올해 전 군민 20만원 지급 도내 첫 시작...지급률 94%·이용률 38%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가장 먼저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률 94%를 기록하며, 초고속 LTE급으로 추진, 현장 체감형 민생정책의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군은 "모든 정책의 성공은 속도와 추진력에 있다"는 심 민 군수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올해 가장 먼저 민생지원금 추진에 발빠르게 돌입했다.

시행 2주째인 26일 현재 전체 지급대상자의 94%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지급 첫 주에만 전체 대상 군민 2만 5,000여명중 2만 3,500여명에게 총 47억원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급 개시 2주만에 90%를 넘어선 지급률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빠른 속도다.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심 군수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의지에 군민의 절실한 체감 수요, 현장 중심의 촘촘한 행정 대응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난방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상징적 지원이 아닌 '즉각적인 생활안정 수단'으로 군민들에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선불카드형태로 지급되고 사용처가 임실군 관내 대부분의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가장 먼저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률 94%를 기록하며, 초고속 LTE급으로 추진, 현장 체감형 민생정책의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업소로 확대되면서 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실제로 1월 26일 기준 약 18억원이 사용돼 이용률 38%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계 부담 완화를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소비촉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에서는 '속도, 접근성, 현장성'을 핵심으로 한 집행전략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마을단위 현장접수와 함께 유산안내,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병행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2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임실군 내 대부분 업소와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전충영 기자

##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최근, 곤충산업 거점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 중심의 청사진 마련으로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본격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 원광대학교, 식품 곤충 전문기업 OMO, 한미화장품,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역 농가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했다.

설계는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소재 생산을 목표로, 전처리·가공센터

규모와 남원만의 특화 아이템 설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으며, 또한 기업 수요를 점검해 구체적인 방향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출연기관인 연구원은 거점 단지를 단순 원료 생산을 넘어 바이오 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 메디케어 소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들어설 남원(사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은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맞춤형 곤충 원료 공급과 함께 입주 혜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확대 추진

남원시는 시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구강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 추진한다.

보건소는 그동안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지도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틀니) 지원 등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구강 이동진료 차량 활용 읍면 지역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대폭 향상되고,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은 기존 틀니 지원에서 임플란트 지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 이 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도 강화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장류축제, 문화관광축제 됐다

### 문체부, 선정... 먹거리·체험·환경 등 좋은 평가 받아

순창군 대표 축제인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년간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 지역 주민 참여도,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순창장류축제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며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로써 순창장류축제는 2026년 국비를 지원받고, 2027년에는 축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아 '명예축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운영한 '읍면 먹거리 부스'는 바가지요금 없이 지역 음식을 정직한 가격에 제공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기간에 운영된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만족도를 높였고, 순창의 전통 장문화를 K-푸드의 상징적인 문화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운영에서도 친환경 실천이 눈에 띄었다. 행사장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줄였고, 사용한 알을 했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운영한 '읍면 먹거리 부스'는 바가지요금 없이 지역 음식을 정직한 가격에 제공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의회, 제350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7일 제 35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실군의회는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전 심의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안건은 △감정중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의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안', △정일문 의원의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등이며 총 23건을 심사한다.

개회사에서 장종민 의장은 "제9대 임실군의회의는 의회 출범 당시 가졌던 결연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실군의회는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전 심의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제9대 임실군의회의는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신뢰에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 순창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손준석)는 27일 제 30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준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투명한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순창군의회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군정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2월 18일까지 우체국 소핑몰 할인행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8일까지 우체국 소핑몰을 통해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추가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 해왔으며, 올해는 상시 20% 할인쿠폰(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의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져, 최대 4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우체국 소핑몰 내 지역 브랜드관에 마련된 남원시 설 브랜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사회공헌활동 선제적 발굴·대응방안 논의

남원시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며, 지난 1월 26일, 이성호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를 지역 내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국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의무화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국내 주요 기업 34곳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부서별 유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키카오 그룹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프로그램 △CJ프레시웨이의 사회복지시설 급식 환경개선 △롯데웰푸드의 지역 맛집 편익점 메뉴 출시 지원 등을 중점 대응 과제로 선정하고, 관내 대상사 모집 등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업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시는 기업의 기술력을 지역 문제 해결에 접목하는 맞춤형 사업 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